

art



New Decade

2010 1

Hot Artist 29

IMMIGRANT & CULTURE

SPECIAL FEATURE

20

New Decade Hot Artist

Anne Olofsson by Bae Myung Ji



의식 밑에 떠도는 작은 공포 스웨덴 출신의 안네 올로프손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진, 영상 작가이다. 작가를 비롯한 주변의 사적인 인물들을 작업에 등장시키며 개인적이면서도 친근한 상황을 통해 무의식적인 공포를 전달하는 언캐니(Uncanny) 사진, 영상 작업으로 유명하다. <Skinned>(2002), <Naked Light of Day> (2004)에서 작가의 몸에 침입한 또 하나의 손이나, <Say Hello and then Wave Good bye>(2004)에서 서서히 한 방울의 물방울로 소멸해 가는 작가의 얼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타인에 의해 점령될 수 있거나 혹은 언제라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불안정한 자아를 언급한다. 식탁 기실 침실 등에 등장하는 안네 올로프손의 인물들은 필름 누아르의 등장인물들처럼 강박 근심 불안을 상기시키거나 기억과 환상이 만나는 심리적인 모호함을 표상한다.

이 작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표상하는 인물들이 안정되고 견고한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포스트모던 주체를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충격적 이미지가 아닌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평온해 보이는 상황 내에서 의식 밑에 떠도는 작은 공포와 균열들을 미묘하게 건드려 고통 죽음 상실과 같이 언어와 논리로 의미화될 수 없는 영역들을 감지하게 한다는 점이다.

(일핏 보았고 지금 그것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C-프린트 180x250cm 2006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 · <스킨드(Skinned)> C-프린트 150x120cm 2002 | **오른쪽** · <언캐니(Uncanny)> C-프린트 120x120cm 2001 | **아래 왼쪽** · <당신은 내림도 나를 사랑할 건가요> C-프린트 100x125cm 2004 | **오른쪽** · <네이키드 라잇 오브 데이(Naked Light of Day)> C-프린트 180x180cm 2004

■ 안네 올로프손
1966년 스웨덴 출생, 노르웨이 오슬로 로얄아트아카데미 졸업, 2004년 스위스 엘리제사신박물관과 런던 해이워드갤러리에서 열린 순회 기획전을 비롯하여 2005년 도쿄 모리미술관, 2009년 뉴욕시립대 그레이아트갤러리에서 전시했다. 스웨덴을 국제 아티스트 스튜디오 프로그램(ASPIS) 작가, 2001년 베니스비엔날레 참가. 한국에서는 아라리오갤러리, 코리아나미술관에서 전시한 바 있다.

■ 배명지
코리아나미술관 책임 큐레이터, 코리아나미술관에서 열린 (울트라 스킨)展(2009) (크로스 엔지니어링)展(2009) (정향방문기)展(2008) (Shall We Smell?)展(2007) (이미지 국경)展(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상 수상) 등을 기획했다.

